

* 방 현(보명)

목차	Abstract
	I. 서론
	II. 범패승 지역 분포도
	III. 범패 중제의 특성 및 법맥
	1. 범패승 중제의 특성
	2. 범패승 중제의 법맥
	IV. 결론
	참고문헌

* 충남무형문화재 제40호 내포영산대재 보유자, 원광대 박사과정
논문투고일 : 2015.07.30. 논문심사일 : 2015.08.17. 게재확정일 : 2015.09.01.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Beompae Jungje* and the Buddhist Doctrines of *Beompae Monks*

Bang, Hyun(Bo-myeong)
Wonkwang University

Today the Buddhist ritual music is performed according to the *Beompae* melodies and ritual procedures unique to each region. It is categorized into the *Gyeongje* of Seoul and Gyeonggi region, *Jungje* of Chungcheong region, *Yeongje* of Yeongnam region, *Wanje* of Honam region, and *Jejuje* of Jeju region.

Jungje has been designated as Intangible Cultural Asset No. 40 of *Nae-poyeongsandaejae* by the Chungcheongnam Province, which has ensured its transmission and preservation. In 2008, some Buddhist priests were appointed as the holders of *Yeongsandaejae* and started to pass it down to their disciples with a focus on *Beomeum*, *Beompae*, and *Jakbeopmu*. In the Chungcheong Province, many *Beompae* monks that have been left out of research have performed their own unique *Beomeumseong*, *Jakbeopmu*, and ritual procedures.

There are three major Buddhist temples where the *Beompae* monks of *Jungje* were active, and they are *Magok*, *Shinwon · Donghak*, and *Sudeok Buddhist Temples*.

This study arranged the genealogy of *Beompae* monks that were active at the three Buddhist temples by the generations according to each period and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Jungje Beompae* monks that referred to the *Beomeum*, *Beompae*, and *Jakbeopmu* of Chungcheong Province.

First, the *Magok Buddhist Temple* line includes the system that succeeds the 1st generation *Eojang Buddhist Priest Beophae Yongeum*, who was a Buddhist priest of high virtue and grand *Gangbaek* of his time that worked on many existing ritual books, the 2nd generation *Eojang Chuidam Ilhyeon*, and *Jeongmuk*, the disciple of 3rd generation *Eojang Buddhist Priest Beomjin*. It also includes many *Beompae* monks that are the disciples of *Seungdo Jian* and *Ilhwa* in the line of 2nd generation *Eojang Buddhist Priest Hyeryeon Ilhwa* such as *Jicheon*, *Jiseon*, *Jiam*, *Jisan*, *Jiho*, *Jibong*, *Jiin*, *Jigwang*, *Jiyeong*, and *Jideok*. The *Gos-eong Yeombul*, which is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Magok Buddhist Temple* line, has been transmitted.

Second, the genealogy of *Shinwon · Donghak Buddhist Temple* includes the 1st generation *Eojang Yongpa*(Buddhist Priest *Palja*), the 2nd generation *Eojang*

Woonhodaecheon that was the Jungheungjo of Jungje Beompae, and the third generation members such as Seonghak, Hyemuk, Seongcheol, Seongjin, Bomyeong, Inho, Gyeheon, Seongcho, Inmuk, and Myeongho. Its Jungje Beompae monks include the ones from other lines such as the 1st generation Eojang Dogwangwonik, 2nd generation Eojang Geumam Daeyeong, and his disciples in the third generation including Deoksan, Byeoksan, Hesang, Hosang, Bosang, Woonsang, and Seoksan.

Third, the genealogy of Sudeok Buddhist Temple includes Geumwoo Seogyeong in the first generation, Hwansang Beopin, Gyeongmyeong, Gyeseok, and Inseong in the second generation, and Yuil, Yujeong, Yugyeong, Yuhwa, Yuseon, and Gitae in the third generation. The Beompae monks of Sudeok Buddhist Temple line are characterized by their performance of Daeyecham, which has almost disappeared in the other regions, in all of their Jae rituals. In Beomeumseong, all the rituals are held in the Goseong Yeombul of Jungje.

Finally, a demonstration is performed in every October to show the current transmission of Naepoyeongsandaejae, Intangible Cultural Asset No. 40 in Chungnam Province, promote the propagation of Buddhism in the areas, and spread the traditional Korean culture and art.

Beompae Jungje reflects the features of Goseong Yeombul whose Beomeumseong is sorrowful and magnificent by the influence of its geographical conditions including the gentle mountain terrain, vast plain, and developed ports.

Modern and contemporary Jungje Beompae monks have performed the three-day Yeongsanje and all sorts of Buddhist rituals at each Buddhist temple and visited Buddhist priests that are versed in the rituals wherever they are to inherit their Beomeum, Beompae, and Jakbeopmu. Once the genealogy of Jungje Beompae monks is established by the generations, it will create an opportunity to do more systematic and profound researches on their Beomeumseong, Jakbeopmu dance steps, and ritual performance procedures that could be buried and go unnoticed for good.

<key words> Yeongsanje, Buddhist music, Beompae monk, Cheondo, Eojang, Yigodeukrak, Beomeumbeompae
주요어) 영산제, 불교음악, 범패승, 천도, 어장, 이고득락, 범음범패

불교의 총림叢林이라 함은 요즘 사찰의 규모로 인식하는 면이 다소 있다. 예전부터 총림의 조건은 부처님이 설법하신 교학을 공부하는 강원講院, 삼처전심의 심법心法 수행처인 선원禪院, 계율의 체계를 세운 율원律院. 수행의 한 방법인 염불원念佛院 등을 갖추어야 총림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 승려의 일상적인 염불 수행법인 예불禮佛, 사시마지四時摩誦, 재齋의식 등을 주관하던 염불원은 명맥이 끊긴지 오래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억불승유 정책 속에서도 불교의 교리인 경전 출판과 의례집이 대부분 왕실의 주도하에 승려들에 의해 편찬되었다.

그동안 다양한 의식집이 간행 되었지만 의식의 규모와 재의 목적, 각 사찰에서 전해 내려오던 의범儀範이 다른 이유로 재를 설행할 때 많은 차이점이 나타난다. 특히 지역 간의 고유한 선율旋律과 의식의 절차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현재 불교의식음악은 서울, 경기지역의 경제京制, 충청지역의 중제中制, 영남지역의 영제嶺制, 호남지역의 완제完制, 제주지역의 제주제濟州制,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제까지 충청도 범패승에 관한 선행연구는 법현, 서정매, 채혜련, 박혜정 등에 의해 부분적인 연구가 있었지만 전무한 상태라 할 수 있다. 특히 중제는 일상적인 예경의식과 모든 재에서 거행 되는 예경식이 다른 지역과 많은 차이점, 화청(회심곡)의 사설을 생생, 노老, 병病, 사死, 극락으로 진행 하는 등 다른 지역과의 차이점을 발견 할 수 있어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찬란한 백제문화와 음악을 꽃피웠던 충청도지역에는 지역을 대표하는 유형문화유산인 마곡사, 수덕사, 신원사, 동학사등 대가람이 존재하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이 지역에서 재 의식관련 문헌이 간행되었으며 현재 소장하고 있는 불교의례집이 다수인 점을 볼 때 불교의식이 활발히 설행 되어 왔었음을 알 수 있다. 불·보살을 찬탄하고 중생교화와 유주 무주고혼의 이고득락을 위한 천도薦度 의식이 성행 되었으리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도 지방에서 불교의례인 범음梵音 범패梵唄가 전승 보존되었다는 연구가 전무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충청도 불교의식을 이끌었던 근현대의 여장魚丈스님들을 조명하여 중제의 특성과 범패승의 범맥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신원사 계열의 박용파, 금하, 대천, 금암, 보영스님등과, 수덕사 계열의 법인, 계석, 경명, 인성, 동산, 유정스님과, 마곡사 계열의 용음, 일현,

일화, 범진 스님 등의 범패승 계보와 범패의 특성 및 충청도 지역에서 설행되어온 의식절차를 문헌의 고증 및 현존하는 스님들의 증언을 토대로 조사연구를 실시하였고, 충남무형문화재 제 40호 내포영산대재의 전승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충청도에서 많은 양의 의식집儀式集이 존재하고 각 사찰에 따라 중요시 여기던 의식이 존재하여 오고 있어 중제中制를 크게 3개 사찰¹⁾ 계열로 나누어 근세에 활동한 범패승의 계보를 중심으로 중제의 뿌리 깊은 범패승의 법맥法脈을 고찰하고 중제의 특징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범패의 지역 분포도

불교의례란 불교적 교리체계와 세계관에 입각하여 오랜 세월을 거치며 반복 정형화된 종교의식 행위이다. 넓게 보면 불교의 종교행위 전체가 이에 해당 될 수 있다. 불교 의례 중 불·보살을 찬탄, 예배, 공양하는 의식에서 불리어지는 범패는 불교 최상의 음악 예술이다(한일문화유산연구원, 2012:381).

불교의식 진행시 의식음악으로 범패는 범음의 가패歌唄라는 뜻을 가진다. 패唄란 패닉唄匿의 약어이며, 찬탄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또한 범패는 성명聲明·찬패讚唄·경패經唄라고도 하는데, 이는 곡조를 붙여서 노래하는 것을 말하고, 한편 각종 계송을 시창示唱하여 불덕을 찬탄하는 것을 말한다(법현, 2012:18).

악樂, 가歌, 무舞의 삼대요소가 포함된 불교의식은 우리민족의 토속 신앙과 자연스럽게 융화되어 찬란한 문화유산을 꽃 피우게 되었다.

범패와 더불어 불교의식에는 작법무가 수반된다. 작법무의 종류로는 나비무, 바라무, 법고무, 타주무 등이 있다. 범패와 태징 소리에 맞춰 몸의 율동으로 찬탄, 공양, 염원, 을 발원하며 법의 희열을 표현한 신업공양을 말한다. 오랜 세월 전승 보존 되어온 범패가 각 지역, 사찰마다 고유한 소리와 작법이 전승 되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¹⁾ 마곡사가 수 사찰로 수덕사는 말사 사찰이었는데 1962년 교구본사가 되고 1984년에 총림이 됨.

불교무용인 작법에서도 내포 영산재만의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바라춤의 경우 바라의 펼침 등에서 경제, 완제, 영제, 제주제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중제 무舞의 특징을 찾을 수 있다. 또 다른 특징은 고무래 정丁자의 사위로 발바닥을 지면으로 향하고 춤을 추는 동작과 절제된 호흡, 그리고 동서 남북 90도 180도 회전 시에도 손이 정지된 것처럼 보이는 절제미와 자제미 등이다(박혜정, 2011:41).

범패는 크게 서울, 경기지역의 경제京制, 충청도 지역의 중제中制, 전라도 지역의 완제完制, 경상도지역의 영제嶺制, 제주지역의 제주제濟州制로 나눌 수 있다.(법현, 2012:437).

각 지역에는 그 지방의 특색 있는 재를 봉행해 왔는데 경제는 시련재, 중제는 대예참재, 완제는 대령, 관육재, 영제는 땅설법 재라 하여 재를 설행할시 범패승들이 의례의 일부분에 치중하며 장엄하고 화려하게 <그림 1> 범패의 지역 분포도 의식을 설행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범패의 지역 분포도 의식

Ⅲ. 범패 중제의 특성 및 범맥

1. 범패승 중제의 특성

불교에서 하늘의 꽃잎을 뿌리며 여래나 보살의 덕을 기리며 공양하는 천인을 ‘비천飛天’이라 일컫고, 하늘의 음악을 연주하며 여래如來나 보살菩薩의 설법說法과 중생 제도를 기리는 천인을 ‘기악천伎樂天’이라고 하고 이들의

연주에 맞춰 추는 춤을 ‘기악천신춤’이라고 한다(서정록, 2001:51). 영산재를 거행하기 위해서는 도량의 청정함과 선신의 옹호함을 빌며 설단과 도량장엄이 필요하며 중생 제도를 위해 무진설법과 하늘의 소리인 범패와 신밀행법을 뜻하는 작법무가 수반된다.

유구한 시대의 흐름 속에 불리어져 온 범패는 지리적인 요소와 지역적 감성으로 인하여 각 지역마다 의식의 진행 절차와 범음성 및 작법무의 춤사위에서 많은 차이점을 발견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제의 내포소리와 춤사위에 대하여 조사 하였다.

충청도 내포지역의 지리적인 특성인 광활한 평야와 완만한 산세의 영향으로 중제 내포소리의 특유의 안채비, 바깥채비, 화청의 염불성을 고성염불로 의식을 진행한다.

안채비소리를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유치성, 착어성, 편계성, 계탁성, 소성, 현좌계성으로 나눈다. 고하자高下字를 정확하게 지으며 짓는 소리도 고성으로 시작하여 마지막 부분에 편안한 미성으로 짓는다. 고성이면서도 미성과 떨림소리로 안채비소리 전반을 진행한다.

중제에 전승되어 지고 있는 바깥채비소리는 홑소리와 짓소리로 나누어진 다. 홑소리의 종류는 할향성, 개계성, 도량계성, 다계성, 송자성, 가영성, 고아계성, 창훈성, 창불성, 옹호계성, 운심계성, 향화계성, 모란찬성, 원아계성, 옥진이성, 향수나열성, 대직찬성, 가지계성, 구원검중성, 삼귀의성, 삼례사부청성등이 전승되고 있으며, 짓소리는 인성, 정례, 거영산, 관육계, 특사가지, 두잡, 오관계, 식영산, 영산지심등이 전승되어 오고 있다. 특이한 점은 짓소리 부분에서 식영산과 오관계는 영산재에서 식당작법에 해당하는 소리인데 중제에서는 현재 식당작법을 거행하지 않고 있다. 근세까지는 식당작법을 거행 하던 것이 의식이 간소화 되고 의식의 주관하는 범패승의 부재로 일어난 일이라 한다(고산스님, 2010:인터뷰). 지금은 내포소리의 식영산과 오관계의 소리가 전승되어 있어 중제고유의 식당작법이 철저한 고증과 증언을 통해 복원 전승되었으면 한다.

중제의 작법무는 바라무, 나비무, 범고무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바라무의 종류는 요잡바라, 명바라,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재진언바라, 관육계바라, 내림계바라가 전승되어 오고 있으며, 나비무는 도량계, 다계, 모란찬, 향화계, 오공양, 삼귀의, 삼원아계, 사방요신, 구원검중등과 범고무가 전승되고 있다.

중제의 반주곡과 그 형식에 있어서는 AA'A"A"'의 서울 경제와 상이하지 만, 역시 표현 방법에 있어서 앞서 제시한 충청도 지역의 방언이 섞였다는가, 가냘픈듯한 떨림소리, 그리고 이 외 여타지방과 다른 고청高聽과 소리의 길이를 길게 잡아끌어서 소리 낸다는 점 등이 독특하다. 범패의 경우 중제의 구성음이 mi-sol-ia-do'-re', 주요음이 mi-la-do', 종지음이 mi 혹은 la, 그리고 MI음을 요성하고 re에서 do로 흘러내리는 시김새를 가지고 있는 메나토리가 중심이 되고 있다(박혜정, 2011:89).

작법무에서 중제의 특성은 90도 180도 360도 회전 시 발모양은 항시 정丁자 사위로 회전하는 반대편 발이 중심축이 되어 돌며 팔 동작은 바라무의 경우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돌리는 동작을 두 번 연속해서 바라를 돌리므로 매우 화려한 춤사위를 보이고 있다. 나비무의 경우는 어깨의 흔들림이 거의 없이 몸과 팔이 하나가 되어 회전하여 엄숙하면서도 여성스러운 나비무를 구사 하고 있다.

2. 범패승 중제의 법맥

1) 마곡사 계열 계보

한국의 근대 충청도 불교계를 언급할 때 마곡사를 주목하지 않으면 안된다. 마곡사는 충남 을 대표하는 수 사찰(본산사찰)로서 구복신앙과 관련한 불교 의례, 특히 어산魚山이 유명했 다. 격변하던 시대에는 사찰 명을 조선불교 선 교 양종 대본산 마곡사朝鮮 佛教 禪教 兩宗 大本山 麻谷寺라 명명하고 있다. 도첩度牒에 나타나듯이 선禪과 敎敎를 중요시하던 사찰이며, 의례 관련문헌이 55권이 전해지고 있다. 편찬된 서적은 수록재와 관련된 『천지 명양수록재찬요』, 『수록의문촬요』, 『천지 명양 수록재의 범음 산보 집』 3집이 있으며, 일 상의의식문을 모아둔 『제반문』, 예배참법에 사용되는 『화엄 예참문』, 환자의 쾌유를 위한 『구명시』가 전해 오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의식 집은 화엄 예참문이다. 중제의 가장 두드러지는 의례의 한 부분으로 모든 재에서 예배참법인 대 예참을 실행한다는 점이다.



사진 1. 근대 마곡사 도첩

표 1. 마곡사의 의례관련 서적 목록

서명	편찬연대	제작형태	내용
천지명양 수륙재찬요	1634년 (인조 12)	1634년 (인조 12)	수륙재 때 행하는 여러 의식절차를 정리한 불교 의례서로서 수륙재는 육지와 물에서 죽어간 고혼을 달래는 불교의례이다.
수륙의 문찰요	1662년 (현종 3, 추정)	목판본 1권 1책	1662년(강희 원년) 개홍사본과 형태사항들이 일치하며, 물과 땅에 음식을 놓아서 고뇌하는 여러 아귀를 구제하는 법회의 의식문을 찰요 하였다.
천지명양수륙 재의범음산 보집	조선 후기	목판본 1책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전반의 지환스님이 수륙재 때 사용되는 여러 의식문들을 정리한 불교의례서이다. 범음은 대범천왕이나 부처님이 내는 청정한 소리로 독경 소리를 뜻하기도 한다. 권두에 '해동사문 지환'이라는 기문이 있어 편자를 알 수 있다.
제반문	조선 후기	필사본 1책	불교 의식집을 필사한 것으로 우리나라 사찰에서 행해진 일상의 의식문을 모아두었다.
화엄예찬문	조선 후기	필사본 1책	예배참법에 사용되는 의식집이다.
구병시	조선 후기	필사본 1책	구병시식이라는 의식에 사용하는 책으로 환자를 위해 알려주는 법문경이다.

(한일문화유산연구원, 2012:385)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대예참을 몇몇 스님들이 거행하였지만 중제의 스님들은 모든 재와 일상적인 사시마지巳時摩旨에서도 대예참大禮懺을 거행한다. 지금도 충청도 지역에서 대예참을 거행하는 사찰이 본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예전에는 대예참을 몇 수數를 질출 안다고 서로 자랑하고 공부의 척도로 삼아 도반스님들과 선의의 경쟁을 벌이곤 하였다 한다. 1998년 근세대 어장이시던 송암 스님이 논산 관음사에서 관음중 종정이시던 운호당 대천스님의 49제에서 석문의 범에 기술된 대예참보다 많은 수를 독송讀誦하고 예전에는 밤 재나 모든 기도에 대예참을 거행했다.

한편 마곡사 계열의 사찰 및 스님들이 소장하고 있는 의례집은 1529년 부여 무량사, 1607년 공주 감사 간행 『천지명양수륙재의찰요』와 1498년 홍산 무량사, 1574년 은진 쌍계사, 1622년 공주 감사 간행 『수륙무차평등재의찰요』(미등, 2015:199)가 전해지며, 1900년 공주 원효사 소장 필사본 『범음집』, 1941년 보명사 소장 『생전예수작법』, 1950년 원효사 소장 『원효사요집』, 1994년 일현스님 문도회 간행 『석문의식집』이 전해지고 있다. 마곡사 계열의 범패승 특징은 고성염불로 너무나도 유명하다.

불조원류간행편찬위원회가 편찬한 『증보불조원류(增補佛祖原流)(1983)』에 따르면 근대의 대어장 법해 용음이 마곡사의 범음 중흥조이다.

마곡사 범패승에 관한 계보는 『증보불조원류(增補佛祖原流)』에 따르면 위와 같았다. 근대에 어장으로 활동하신 스님들을 보면 법해 용음 法海 龍吟, 일현 一玄, 그리고 마곡사 주지를 역임하신 법인 法忍을 비롯하여 지금의 조계종 대어장 이신 동주 원명의 친부인 이종선, 권만호, 황태호, 호응 보순 湖應 普淳, 일화 一華 스님 등이 있다.

“지금은 마곡사문중 에서 범패승으로 활동하시는 스님 들이 많이 없지만 그 당시에는 어산 이 일상적인 것이어서 생활화되었다고 볼 수 있지요, 안채비는 물론 바깥채비인 훗소리 짓 소리까지 질줄 알았으니...” (범진스님, 2015·인터뷰).

조계종 어장이신 범진스님이 그 당시를 회상하시는 말씀에서 마곡사에서 재의식이 대 규모로 설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찰에서의 의례는 너무나 일상적인 일이기에 오히려 기록으로 남길 이유가 없었다. 그래서 의례에 관한 역사기록을 찾기가 어렵다. 특이하게 기록된 것은 1789년(정조 13) 원자 탄생을 위한 1000일 기도를 시작 했다는 기록이 마곡사 사적입안(2012:388)에 기록되었다. 이 기도 덕분에 순조가 탄생하였고 마곡사는 순조의 태실사찰로 봉해져 도내 수 사찰로 직인을 받았다. 이 밖에 마곡사 중창에 공이 큰 관찰사를 위한 재 공양을 올렸다는 기록 등이 남아 있다” (한일문화유산연구원, 2012:388). 1950~60년대에는 마곡사 말사인 무량사에서 대해 스님을 중심으로 범패교육을 진행했다고 한다(홍태한, 2014:91). 위 내용을 종합해보면 마곡사에서 많은 의례를 설행했었고 이로 인해 범패승들의 활동 영역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마곡사계열에서 활동한 범패승을 문헌과 면담, 인터뷰를 중심으로 세대별로 계보를 정리한 것이다.

표 2. 마곡사의 의례관련 서적 목록

법해 용음 法海 龍吟	➔	취담 일현 翠潭 一玄	➔	범진 梵眞	➔	정묵 正默	➔	한상인(법인) 法海 龍吟
금담 장호 金潭 章鎬	➔	혜련 일화 慧蓮 一華	➔	智泉 智船 智巖 智山 智湖 智峰 智仁 智洸 智英 智德				
한송 각률 漢松 覺律	➔	영명 병석 永命 炳奭	➔	호응 보순 湖應 普淳	➔	성진 星軫		

(1) 1세대 어장

① 법해 용음(法海 龍吟, 1887~1950)

『마곡사지』에 의하면 1887년 10월 2일 경북 문경군 산북면 회룡리에서 부친 평해 황씨 덕진과 모친 정심리의 차남으로 태어났다. 속명은 법해法海이며, 1903년 수덕사로 출가 수학한 뒤 1909년 김용사 김응하스님께 사교과를 수료하고, 1928년 마곡사에서 중덕계를 수계하였다. 그는 “1936년 수덕사 강원을 창립하였으며, 이후 수덕사 조실로 있으면서 선원에서 후학을 제접하였으며(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발행, 『선원총람』) 1948년 마곡사 토굴암으로 옮겨 정진하다 1950년 1·4 후퇴 때 눈이 많이 온 날 그곳에서 입적하였다.”라는 기록을 볼 때 용음 스님은 선禪과 敎敎를 두루 섭렵涉獵하신 스님으로 불교의식의 대가로 명성이 높았다. 그의 제자로는 근세의 조계종 어산 장 이신 일현一玄스님 등이 있다.

(2) 2세대 어장

① 취담 일현(翠潭 一玄 1920~1991)

1923년 3살 어머니와 함께 수덕사로 동진 출가하였으며 일곱 살 때부터 수덕사에서 채공菜供소임을 맡았다. 법해 용음의 제자이며, 당시 불교의식의 대가로 이름이 높았던 용음에게 어산을 사사 받았다. 마곡사 주지직을 다섯 번 역임하였고 그의 일화로는 너무나도 유명한 “중이 되어서 탁자밥을 내려 먹을 줄 모르면 아무 소용도 없다”라는 말을 제자들에게 자주 경책하시며 수행자의 본분을 강조하셨다고 전해지고 있다. 또 다른 일화로는 “마곡사에 가서 엽불 자랑 말고, 갑사에 가서 힘 자랑 하지 말라”라는 유명한 말이 있는데 일현스님 때문에 생겨났을 정도로 불교의례에 대가이셨다. 대표적인 예로는 『마곡사지』에 1971년 청담스님의 다비의식을 집전했다. 그의 제자로는 조계종 어장 범진梵眞스님 등이 있으며, 1994년 스님의 유지에 따라 후학들이 평생정리해온 『석문 의식집』 있다. 후학들은 『석문 의식집』에서 “스님께서서는 동진 출가 하시어 평생을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시는 엽불수행으로 일관하셨으니 분명 이 땅의 불교계에 다시없으신 찬불승讚佛乘의 상징적 존재이셨습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② 해련 일화(慧蓮 一華 1927~2000)

1940년 당대의 선지식이신 금담金潭스님을 은사로 만호滿湖, 금오金烏스님을 계사로 마곡사에서 득도하고, 1945년 마곡사 불교 전문 강원 대교과大敎科를 졸업한 후, (재)한국불교 법륜종 총무위원장, 종정을 역임했다.

1972년 공주 금학동에 원효사元曉寺를 창건하였으며, 평생 후학에게 경전강의經典講義와 불교의례佛敎儀禮의 실행을 교리에 입각하여 행할 것을 후학에게 당부하신 스님은 중제의 의식 중 안채비 소리에 매우 능하였다. 범패의 사성四聲, 고하자高下字를 정확하게 질 것을 강조하면서 관음예문 기도를 일상화 하였다. 그의 범패성은 엄숙하며 소리의 굴곡이 물 흘러가듯 자연스러웠으며 삼밀행법의 수인법을 늘 강조하였다. 저서로는 1979년 천수·심경과 1980년 재 의식 실행을 다룬 원효사 요집 등 다수의 의례집을 편찬하였다.

(3) 3세대 어장

① 범진(梵眞 1941~)

1966년 마곡사에서 취담 일현스님翠潭 一玄을 은사로 득도. 당대의 대강백 이신 김대은스님께 내전과정 대교과를 졸업하고, 소림사 주지를 역임했다. 마곡사주지 직무대행의 소임을 맡았으며, 삼보사찰인 해인사, 통도사, 송광사에서 염불강사를 하였다. 또한 KBS 한국의 미(범패)에 출연하였으며, 1986년 한국의 삼대 성악의 밤에 판소리 명인 박동진, 정가명인 김월하와 함께 범패부분에 출연하였다. 그는 은사인 일현스님에게 제반의식과 마곡사계열의 범음성의 특징인 고성염불을 사사 받았으며, 향시 고성염불의 공덕과 염불삼매念佛三昧에 들것을 강조하였다. 그의 제자로는 정목正默 등이 있으며, 1992년 ‘가룽 빈가회’를 발족하고 음악포교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② 승도 지안(承道 智眼 1945~)

1979년 공주 원효사에서 헤런 일화스님을 은사로 득도하였으며, 청양 봉안사 주지를 역임 했으며, 현재 경북 군위 원각사 주지로 있다. 그의 은사인 일화에게 불교의례의 실행 이론과 안채비의식에 대해서 수년 간 수학하고, 경제의 대어장인 송암스님에게 1986년부터 4년 동안 상주권공, 각배, 안채비의식을 사사받았다. 재장에서 그의 고성 염불 소리에 다른 승녀들은 범음성, 고하자를 질수 없을 정도로 고성염불로 유명한 그는 마곡사 계열의 고성염불 수행의 산증인이다. 저서로는 1990년 봉안사 간행 49제 및 불상점안의식, 1988년 상용 의례집, 2012년 흥교 승도 의식집 등이 있다.

2) 범패승 신원사·동학사 계열 계보

충남의 명산인 계룡산에 동서남북 사찰 중 남사南寺에 위치한 신원사新元寺는 “백제 의자왕 11년(651)에 창건된 사찰로 계룡산 열반종涅槃宗 개산조開山祖 보덕普德이 창건하였다. 그리고 계룡산에 위치한 보물 제 1293호인 중악단中嶽壇은 국가에서 계룡 산신에게 제사 지내기 위해 조선시대에 지어진 건축물이다.

무학 대사 꿈에 산신이 나타났다는 말을 듣고 태조3년(1394)에 처음 제사를 지냈다고 전해지며, 효종 2년(1651)에 제단이 폐지되었다. 그 후 고종16년(1879)에 명성황후의 명으로 다시 지어진 중악단은 삼국시대부터 산신사상이 내려오고 신라 문무왕이 5악제를 올린이후 제사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http://www.sinwonsa.kr). 명성황후가 고종과 국가를 위해 국태민안의 치성을 드리던 중악단 산신제는 1998년 복원되어 불佛·유儒·무巫가 어우러져 산신제를 매년 봉행한다.

문헌에 전한 무학 대사 꿈에 산신이 나타나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을 볼 때 승녀인 무학 대사가 불교의식으로 산신제를 거행했을 것으로 보인다. 불교의례 편에 보면 산신청山神請이 한 부분을 자리 잡고 있다. 지금도 산신제를 봉행할 때 범음, 범패, 작법무 의식이 진행된다. 신원사에서 예전에 범패가 성행했다는 여러 노스님들의 증언을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어떤 문헌에도 범패와 작법무를 설행 했다는 기록은 없다. 불교의식의 설행은 일상적이고 생활화 되어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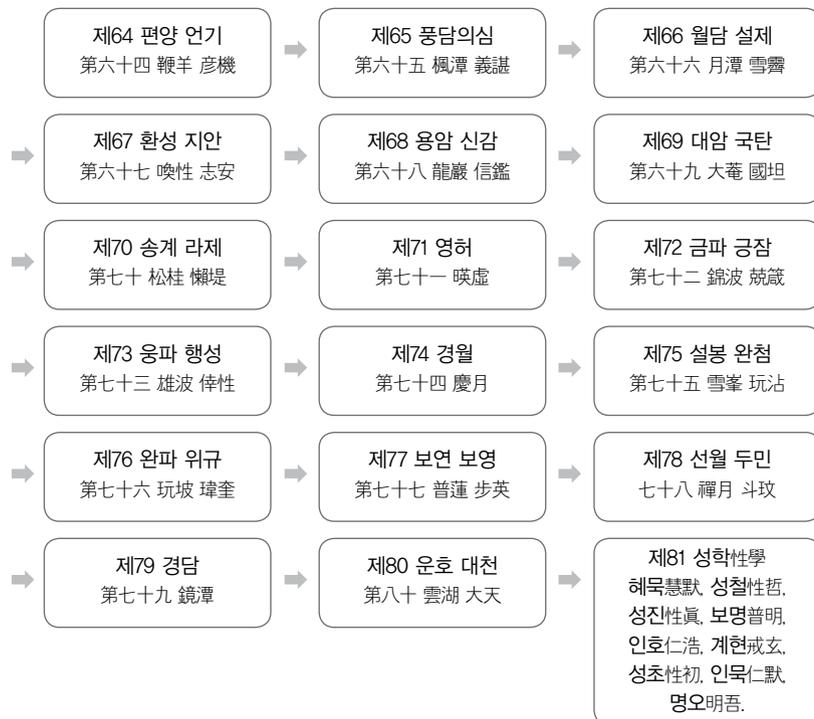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근, 현대 이르러 신원사 계열의 대 어장 스님의 행적을 찾을 수 있었다. 중제 내포소리 증흥조이신 운호 대천 스님이 논산군 광석면 황월리 영선사에서 속명 박승월 범명 용파(별명: 팔자 스님)에게 안채비, 바깥채비인 홀소리, 깃소리, 작법무를 수년간 사사 받았음을 알 수 있었다(덕산스님 인터뷰, 2015). 그의 제자로는 대천, 금하, 보영 등 당대 어장들이 용파 스님에게 범음 범패를 전수받았다. 특이한 점은 전라도 완제의 대어장 주금하 스님도 용파 스님에게 사사 받았다는 점이다.

전라도 완제와 충청도 중제의 범패성 중 거불, 창훈, 대령의 설행 절차, 신중작법 중 옹호계(깃소리), 작법무의 춤사위 등에서 유사한 점을 발견 할 수 있는데 한 스승에게 공부하고 후학에게 전수해 의식 전반이 같은 맥락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추론 할 수 있다. 신원사, 동학사 범패승 계보는 불조원류간행편찬위원회가 편찬한 『증보불조원류(增補佛祖原流)』(1983)에 따르면 근대의 대천스님이 범패 증흥조 이다.

용파(팔자스님)	→	운호 대천 雲湖 大天	→	성학 性學 혜묵 慧默 성철 性哲 성진 性眞 보명 普明 인호 仁浩 계현 戒玄 성초 性初 인묵 仁默 명오 明吾
	→	금하		
	→	보영		
도광 원익 道光 元益	→	금암 대영 錦岩 大永	→	덕산 德山 벽산 碧山 혜산 慧山 호산 虎山 보산 寶山 운산 雲山 석산 石山

그림 2. 신원사·동학사 계열 범패승 계보

◎ 운호당 대천 전법 계보



◎ 금암당 대영 전법 계보(보광사, 2004:78)



(1) 1세대 어장

① 용파(龍波?)

속명은 박승일, 법명은 용파이다. 일설에는 팔자스님이라 하고, 근세에 범패승으로 전국적으로 명성을 떨친 스님으로 중제의 대어장이다. 지금의 논산시 광석면 황월리 영선사에서 주석하며 중제 내포소리를 전승하였다. 안채비는 물론 바깥채비인 상주권공, 각배, 영산, 수록, 예수재까지 후학에게 지도하고 중제 고유의 작법무 춤사위와 깃소리, 도량 장엄 부분까지 그의 제자들에게 전수하였다.

(2) 2세대 어장

① 운호 대천(雲湖 大天 1921~1998)²⁾

1934년 신원사에서 응암선사를 은사로 득도하였으며, 1942년 마곡사에서 금오선사金烏 禪師를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하였다. 1944년 마곡사 불교강원 대교과를 졸업하고, 1954년 논산 관음사 주지로 취임했다. 1963년 조계종 중앙총회위원, 1971년 태고종 충남교구 종무원장, 1991년 관음종 4대 종정으로 추대되었다. 1998년 12월 4일 세수 78세 법랍 65세로 열반하셨다. 스님의 행적에서 나타나듯이 일생을 불교 교화와 후학지도에 열성을 다하신 대선지식이시고 염불인 이셨다. 중제 범패의 중흥조로 1971년 태고종 충남교구 종무원장에 취임하자 72년부터 당시의 보문 중·고등학교에

²⁾ 본 연구자는 은사이신 스님에게 의례의 선행절차와 안채비, 바깥채비, 깃소리 일부분을 전수 받았다.

서 불교의례 설행이론과 범패, 작법무를 매년 주기적으로 10여간 교육하였다. 스님의 주도하에 1976년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영산대재를 거행했는데 당시 중제 어장스님들과 경제의 어장스님들이 어우러져 대법회를 봉행했는데 불자들이 인산인해로 모여 성황리에 법회를 회향하였다. 충청도와 전라도등에 영산재나 수록재 등 불교의 제반 행사에 초빙되어 의식을 집전하셨다. 중제 내포소리 전승, 발전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며 제자들의 질문에 장소와 때를 불문하고 다정하게 답해주시곤 하였다. “스님은 평소에는 온화하고 자애로운 스승이셨지만 의례를 설행할 때 다른 짓을 하거나 의례문儀禮文을 염송할 때 오자誤字가 나면 불호령이 떨어지곤 하셨지요.” (상좌인 성문사 주지 성학스님 인터뷰, 2011). 불교의례를 설행할 때 승녀의 기본자세와 마음가짐, 경전을 염송(念誦)할시 염불 삼매에 들 것, 경구의 뜻을 관觀할 것을 평상시에도 강조하였다. 그의 성음聲音은 떨림의 바이브레이션음의 어울어진 소리로 당대의 경제 대어장 이신 송암스님도 감탄할 정도였으며, 재장에서 그의 범음성에 심취한 신도들은 숨조차 크게 못 쉬었다. 그의 제자로는 성학, 혜묵, 성철, 성진, 보명, 계현, 성초, 인묵, 명호 등이 스님의 유지에 따라 중제 범패의 전승, 보존을 위해 정진 중다.

② 금암 대영(錦岩 大永 1914~2015)

1930년 동학사에서 도광道光스님을 은사로 석우石牛스님을 계사戒師로 사미계沙彌戒 수지득도受持得度하였다. 1936년 동학사 불교전문강원佛敎專門講院에서 백초월白初月, 윤운문尹雲門을 스승으로 사교과를 수료하였다. 1939년 전북 대본산大本山, 전주 위봉사威鳳寺, 금산金山 보석사寶石寺 연합불교전문강원에서 강백講伯 진진응陳震應 강사를 하였으며, 민창기閔彰基스님을 스승으로 대교과를 졸업하였다. 1946년 공주 동학사 주지로 재직하였으며, 1970년에는 대전 푸른언덕 보광사 주지로 재직하였다. 1983년에는 태고종 충남교구 중무원장, 그리고 1988년에 법륜宗法輪宗 제1대 종정으로 취임했다. 2015년 열반涅槃, 적정寂靜에 드셨다. 스님은 한 세기의 삶을 영위하신 근 현대 불교계의 산 증인이시자 선지식이며 대선사이다. 온화한 성품과 다정다감한 인품은 불교계는 물론 지역사회에서도 소문이 자자할 정도로 승녀의 귀감이 되신 분이다. 불교의례의 설행과 경학에도 매우 밝으신 스님은 동학사 강원에서 중제 범음 범패를 익혔다. 당시에는 강원에서도 경학과 염불을 겸해서 공부했다고 노스님들은 증언하고 있다(유경스님 인터뷰, 1996). 그의 스승 도광 원익道光元益에게 범음, 범패를 전수받은 스님은 안채비, 바깥채비 소리에도 매우 능하셨다. 운호당 대천스님, 혜련당 일화스님과 함께 현 불교설행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후학에게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았던 스님은 중제 범패와 더불어 경제 범음, 범패 공부 위해 경제의 본고장인 서울 봉원사에 6년간 주석하시며 경제소리를 익혔다. 옥천 범음회 1회 졸업생이며 조계종 어장 동주 원명스님과 동문 수학 하였다. 스님의 범음성은 차분하고 엄숙하게 의례를 실행하시고 불자들이 경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글 역경에도 힘을 아끼지 않았다.

(3) 3세대 범패승

① 덕산 창법(德山 昌法 1937 ~)

1967년 대전 보광사에서 금암 대영을 은사로 득도하셨으며, 논산 지장암 주지, 한국불교 법륜종 총무원장을 역임했다. 현재 지장정사의 회주이시다. 그의 스승 금암스님에게 중제의 안채비, 재의 실행 절차에 관해 수년간 사사 받았다. 승녀가 된 후 대원력을 세워 논산시 노성면 화곡리에서 계룡산까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3000일 기도를 성만한 기도승으로 불교의례 실행에 남다른 식견을 가지고 있는 그는 총무원장 시절 일본 남장원에서 수륙영산대재를 봉행하고, 대전 엑스포 무역 전시관에서 중제 학인승녀의 집전 하에 생전에수시왕생칠지재를 봉행하였으며, 강경 포구에서 수륙재를 열고 매년 중제 영산재를 시현하는 등 중제의 전승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였다. 그의 범음성은 입으로만 하는 염불이 아닌 간절하게 불·보살 찬탄, 예경, 공양하는 구도자의 참 모습을 보여준다. 불교의례의 실행에 밝은 그는 후학에게 이치에 맞게 문헌을 참고하여 행할 것을 항시 강조하였다.

② 호산 봉안(虎山 奉安 1948 ~)

1948년 충북 괴산군 사리면 화산리 출생으로 1977년 현명賢明 작현爵賢스님을 은사로 연기군 동면 황룡사黃龍寺에서 득도得度하셨다. 현재 증평 기원사祈願寺 주지로 계신다. 내포 영산대재 자문위원이시며, 영산재, 수륙재 등을 실행하기 위해 범음, 범패, 작법무가 행해진다. 의식의 장엄함을 돋보이고 작법무를 거행함에 있어 사물이외의 가락이 수반되어야 하며, 취타와 삼현육각, 호적(태평소)소리가 어우러져 의식을 장엄하게 봉행하는데 그중 호적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호산스님은 중제 범패 안채비, 바깥채비를 7년 동안 수학하고 의례의 실행에서 호적의 중요성을 깨닫고 불교의 제반의식 가락을 수년간 전수 받았다. 호적 가락인 능계, 시나위와 천수바라, 착복(나비춤)가락에 매우 능하다.

3) 수덕사 계열 범패승 계보

“백제 침류왕(柸流王) 원년(元年 384) 중국 진(晉)나라에서 온 인도승녀 마라난타가 백제땅에 불교를 전한 후 ‘백제는 승녀와 절과 탑이 많다’ 라고 중국 사서(史書)인 『북사(北史)』, 『수서(隋書)』, 『주서(周書)』에 기록되어 있으며 이때부터 불교는 국교(國敎)로서 융성하였다. 수덕사는 문헌에 의하면 백제 사찰로는 흥륜사(興輪寺), 왕흥사(王興寺), 칠악사(漆岳寺), 수덕사(修德寺), 사자사(師子寺), 미륵사(彌勒寺), 제석정사(帝釋精寺) 등 12개 사찰이 전하지만 현재까지 큰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사찰은 수덕사 뿐 이다. 백제 사찰인 수덕사는 학계에서 대체적으로 백제 위덕왕(威德王 554~597) 재위 시에 창건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불교성보문화연구소, 1998:12).

한국 불교계의 ‘총림’³⁾은 통도사 영축총림, 해인사 해인총림, 송광사 조계총림, 수덕사 덕숭 총림, 백양사 고불총림 등 5개의 총림이 있다. 그중 수덕사 덕숭 총림은 1962년 조계종 7교구 교구본사가 되고, 1984년 덕숭 총림이 되었다.

근 현대 불교계를 언급 할 때 덕숭 산문의 경허, 만공을 잇는 간화선 중심의 선맥(禪脈)을 중요 시 여기고 있다. 1936년 법해 용음(法海 龍吟)에 의해 강원을 설립되었다. 선풍의 진작뿐만 아니라 교학에도 힘쓴 수덕사는 근세 대선지식이신 만공선사는 수많은 제자들을 배출했다. 선을 중요시 하면서 교학을 섭렵한 제자 중 불교의례설행에 남다른 식견을 가지신 춘성스님을 주목해야 한다.

춘성스님의 범음성은 덕숭산이 울리도록 찌렁찌렁한 목소리로 유명했다고 한다. 수덕사 금강암에서 출가한 현 대룡사 주지 유정(高善)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49제나 천도제가 사중에 들어오면 의식을 춘성스님의 주관아래 의식이 거행됐죠. 지금은 재의 규모가 축소되어 그때의 모습을 볼 수 없지만 제가 기억하기로 3일 밤낮동안 봉행되는 3일 영산재를 수덕사와 비구니 승방인 견성암에서 자주 거행 했어요.

지금은 전국 어느 사찰에서도 영산재나 수록재 등에서 예배참법인 대 예참을 모시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모든 재 의식에서 새벽에 대 예참을 거행 했지, 지금 중 들은 대 예참이 무엇인지도 몰라”(고산스님, 2011:인터뷰).

3일 영산을 거행했다면 도량장엄과 안채비, 바깥채비의 범패와 작법무가 수반되어 하는데 수덕사는 간화선풍의 맥을 잇는 참선도량인데, 외방스님들을 청송하지 않으면 의식을 거행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노스님들의 증언내용을 들어보면 “대선객이시던 춘성스님은 당시 불교의례, 의식을 통달해서 안채비소리는 물론 바깥채비인 홀소리, 짓소리까지 질줄 아셨

3) 많은 스님들이 함께 모여 수행 정진하는 절, 수행하는 스님들이 화합하는 모습이 마치 수목(樹木)이 우거진 숲과 같다는 데서 유래(불교문화연구원, 2009:413).

으며 스님에 집전 하에 재가 봉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외 범패승으로
는 법인, 경명, 계석, 인성스님등과 그의 제자들이 범패를 계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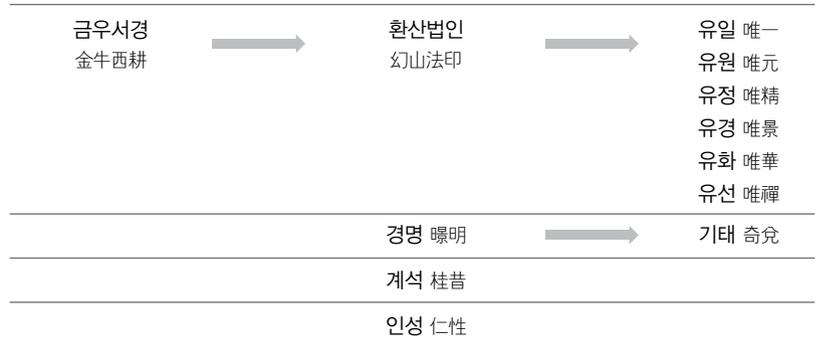


그림 3. 수덕사 계열 범패승 계보

(1) 1세대 범패승

환산 법인(幻山 法印 1903~1886)

수덕사에서 동진 출가했으며, 금강암, 범륜사에서 일생을 참선과 염불정진
으로 보내신 대선사이다. 수많은 제자를 배출했으며, 백일기도를 장좌 불
와한 그의 일화는 너무나도 유명하다. 범패는 수덕사에서 동진 출가하여
자연스럽게 접했으며 그의 범패성은 고성 염불과 강한 발성으로 그의 제자
들이 재를 거행할 때 진땀을 흘리곤 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안채비에 매우
능하며 중제의 특징인 대 예참을 모실 것을 향시 당부하여 제자들 대부분
이 지금도 새벽 예불을 모실 때 대 예참을 거행한다. 그의 제자는 유일, 유
원, 유정, 유경, 유화, 보명, 유선 등이 있다.

(2) 2세대 범패승

① 경명(暲明 1916~1996)

공주시 의당면 용암리 출생으로 5살에 공주 마곡사에서 동진 출가하였다.
당대 큰스님 이시던 성담, 금담스님과 함께 마곡사, 범주사강원에서 대교
과를 졸업했다. 수덕문중이 되어 중제 범패를 두루 섭렵하시고 경제의 대
어장 월하스님에게 사사받았다. 중제범패의 운호 대천 스님과 쌍벽을 이
뤄 당시 충청도 안에서 윗소리 아래소리로 나뉘었다고 한다. 모든 불교의
식에 능하셨으며, 짓소리에도 매우 능하셨다. 범패는 물론 작법무도 매우
능하여 후학에게 중제의 범음범패와 작법무를 전수⁴⁾하였다. 그의 제자로
는 자광 기태慈光 奇兌가 있다.

3) 본 연구자도 스님에게 수 년 간 중제의 범패와 작법무를 사사받았다.

② 고산유정(古山 唯精 1933~)

14세 때 법인스님을 은사로 고봉스님을 계사로 수덕사 금강암에서 출가하였다. 현재 공주 대룡사 주지이며, 재단법인 법륜종 총무원장을 역임했다. 그의 은사인 법인스님과 경업스님에게 안채비, 바깥채비를 사사 받았으며 그의 범음성은 온화하고 잔잔한 것이 특징이며 도량장엄에도 매우 능하다. 그의 제자는 혜일, 혜원, 청봉 등이 있다.

③ 동산, 계석, 인성

범패도 능하시며 작법무에도 매우 능한 스님으로 전해지고 있다.

④ 백운 용우(白雲 龍雨 1936~2005)

논산시 상월면 불암사에서 혜암을 은사로 동진출가하였다. 그의 스승에게 범패와 도량 장엄을 전수 받았다. 안채비와 바깥채비에 능하였으며, 도량 장엄은 물론 고임새, 가사 짓는데도 출중하며, 불교의례 중 스님들이 열반 시 시다림의식에도 매우 능하였다. 그의 제자는 선광, 선애, 선법 등이 있다.

⑤ 보산 지원(寶山 指月 1952~)

1970년 석호 선기石虎 鮮基 스님을 은사로 수덕사에서 득도했으며, 현 조치원 보림사 주지이다. 안채비 바깥채비, 작법무, 화청(회심곡)에 매우 능하며 중제의 화청가락을 보존한 스님으로 고성 염불성으로 애절하면서도 미성으로 여성적인 성질을 구사한다.

이 외에도 도량장엄 부분의 스님은 수덕사 계열의 완산, 신원사 계열의 송보영 스님이 계셨는데 모두 열반하시어 그 후계자가 없어 도량장엄 부분은 맥이 끊어졌다.

4) 충남 무형문화재 제40호 내포영산대재 전승현황

2008년 2월 29일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제40호 내포영산대재는 충청도 내륙을 중심으로 전승되어온 불교의식으로써 독창적인 범패선율과 작법무를 보존하고 있다. 내포소리의 특징인 가냘프면서 끊어질듯 이어지는 소리의 떨림 현상 및 고청을 사용해 의식을 거행한다.

도 지정 무형문화재 제40호 내포영산대재 보유자 방현(보명)을 중심으로 보존회 및 부설 법륜, 범음, 작법대학 학인들 그리고 전통문화에 관심 있는 신 분들이 주축이 되어 매년 10월에 영산재 시연회를 개최 하며 국내는 물론

해외 각국에 초청되어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통문화 유산을 알리고 있다. 보유자 방현(보명)의 이수자, 전수자, 정회원으로 내포영산대재를 전승하고 있는데 전승계보는 <그림 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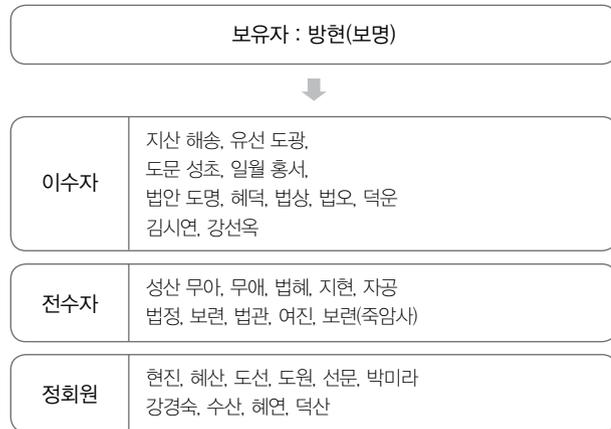


그림 4. 충남 무형문화재 제40호 내포영산대재 전승계보

V. 결론

본 연구는 중제 내포소리를 중심으로 한 충청 지역의 대표적인 가람인 마곡사·신원사·동학사·수덕사계열로 세분화하여 범패승들의 계보를 세대별 문중별로 면밀히 나누어 정립 분석해 보았다.

첫째, 마곡사에는 많은 불교의례집이 현존하고 대규모의 불교의식이 설행되어왔음을 알 수 있었다. 범패승은 선과 교를 두루 섭렵하신 1세대 어장 법해용음, 2세대 어장 취담 일현, 혜련일화, 3세대 범진, 승도지안, 지천 지선, 지암, 지산, 지호, 지봉, 지인, 지광 지영, 지덕등의 범패승을 들 수 있다.

둘째, 신원사, 동학사계열의 범패승은 중제와 완제의 근, 현대의 범패승을 지도하신 1세대어장 용파(팔자스님)와 중제범패의 중흥조이신 2세대어장 운호 대천, 금암 대영스님, 3세대인덕, 성학, 혜묵, 성철, 벽산, 혜산, 호산, 성진, 보명, 인호, 계현, 성초, 운산, 석산인묵, 명오 등의 범패승을 들 수 있다.

셋째, 수덕사계열의 서경스님과 당대의 선지식이시고 평생 참선에 일관하신 춘성스님이 범음범패에 매우 능하셨다는 여러 노스님들의 증언을 들을 수 있었다. 서경스님의 제자 백일 장좌 불와 기도를 성만하시고 중제 범패의 특징인 대예참을 일상적인 기도정진 하신 환산법인스님과 그의 제자 유일, 유원, 유정, 유경, 유화, 유선 등의 범패승을 들 수 있다.

넷째,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제40호 내포영산재는 보유자 방현(보명)을 중심으로 충청도 지역에서 전승되어온 범음의 안채비소리와 바깥채비인 훗소리와 짓소리 작법무를 연구 전승하고 있으며, 이수자는 지산해송, 유선도광, 도문성초, 일월홍서, 법안도명, 혜덕, 법상, 법오, 덕운, 김시연, 강선옥이 중제 범패의 맥을 계승하고 있다. 또한 전수자는 성산무아, 무애, 법혜, 지현, 자공, 법정, 보련, 법관, 여진, 보련(죽암사)이 있으며 내포영산재 중제범패의 보존 전승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영원히 묻혀 버릴 수 있었던 충청도 범패승들의 문중별 세대별 계보정립은 차후 중제 고유의 범음성, 작법무의 춤사위, 의식의 실행 절차, 도량장엄 부분의 연구에 첫 시발점을 제시한 것이며, 이 연구를 계기로 중제의 내포소리와 작법무의 춤사위, 중제고유의 재의식 실행에 관한 포괄적이며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불교의례에 있어서 도량장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 부분에서 중제 범패승들 중에 지화紙花와 고임새, 가사, 복장의식에 관하여 매우 능한 스님들이 계셨으며, 본 연구결과 중제에도 수 없이 많은 범패승들이 존재해왔음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은 중제고유의 범패소리인 안채비는 물론 바깥채비인 훗소리, 짓소리와 화청, 작법무를 통해 수록재와 3일 영산재를 거행했다는 증언을 들을 수 있었다. 중제 범패승의 범음성梵音聲, 독특한 의식 절차, 장엄 등 다른 지역과의 많은 차이점을 발견 할 수 있었다. 또한 범패승 계보에 관한 연구가 다소 늦은 감이 있음을 실감하며, 이 연구가 첫걸음이 되어 중제범패승들의 범패 선율과 의식 진행 절차, 고유의 춤사위 등 좀 더 세밀하고 광범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명신(1996), "전북 봉서사 영산작법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대학원.
 김응기(2003), "영산재 작법무 범패의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대학원.

마등(2015),	“한국수륙재의 의례와 선행양상”,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방현(2014),	“백제문화권 내포지역 영산재 작법연구”, 미간행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대학원.
법현(2012),	불교의식음악 연구 , 화순: 운주사.
불교성보문화연구소(1998),	덕송산 수덕사 .
서정매(2012),	“부산지역 범패송 계보연구”, 한국국악학회, 한국음악연구 제51호 : 115.
_____(2015),	“영제범패(영산작법)연구”,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손인애(2013),	경산제불교음악 , 서울: 민속원.
이병욱(2013),	한국무용통사 , 서울: 민속원.
이일호(2011),	“범패송의 계보와 전승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일현(1994),	석문의식집 , 마곡사: 대흥기획.
장사훈(1997),	한국전통무용 연구 , 서울: 일지사.
(재)한일문화유산연구원(2012),	마곡사지 , 공주시·마곡사.
홍태한(2014),	“지역주민과 함께한 60년 역사의 백제문화재 수륙재”, 백제문화재 60회 기념 학법 학술세미나 : 9.
한만영(1984),	“ 한국불교음악 연구 ”,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채혜련(2010),	“영산재 범패의 선율에 관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대학원.

면담 일정 및 내용

- 논산 지장정사 화주 **덕산스님**(2000.2.10; 2009.3.5; 2010.10.12; 2015.6.10; 2000~2015 전화 인터뷰 다수, 논산 지장정사) · 충청도지역 범패송 및 대천, 보영, 용파스님 관련
- 공주 원호사 주지 **해월스님**(2008.1.12; 2009.9.5; 2012.3.7; 2015.6.10.공주 원호사) · 마곡사 범패송 및 일화스님 관련
- 월하스님**(1995.10.10; 1999.11.8; 2000.3.16; 2010.5.9; 2014.12.3; 1995~2015 전화 인터뷰 다수, 천안 보명사/송래 보명사) · 대천스님 관련 내포소리
- 성학스님**(2001.6.5; 2008.11.20; 2010.5.17; 2015.5.10, 천안 성문사) · 내포소리 및 대천스님 관련
- 선견스님**(1998.7.16; 2003.7.16; 2007.11.25; 2009.6.10; 2013.7.2; 2015.6.10; 1998 ~2015 전화 인터뷰 다수, 전의 낙양사) · 수덕사 계열의 범패송
- 고산스님**(1998.9.24; 2000.6.10; 2013.11.3; 1998~2013 전화 인터뷰 다수, 예산 법륜사, 유구 대룡사) · 수덕사 계열의 범패송 및 내포소리
- 해묵스님**(1999.10.17; 2005.6.3; 2014.7.20, 논산 관음사) · 신원사 계열 범패송 관련
- 성진스님**(2003.5.12; 2014.10.17, 논산 봉황사) · 대천스님 범패 관련
- 해송스님**(1997.11.12; 1999.6.17; 2006.10.3; 2010.6.5; 2014.12.12; 1997~2014 전화 인터뷰 다수, 논산 백운사, 서천 유구 대룡사) · 내포영산대재 작법관련
- 도명스님**(2000.2.5; 2007.10.17; 2009.8.14; 2013.6.19, 증평 연화사) · 내포소리 관련
- 성초스님**(2000.2.17; 2003.10.18; 2005.11.3; 2012.2.6; 2000~2015 전화 인터뷰 다수, 금산 용암사) · 내포영산대재 작법무 관련
- 해덕스님**(2015.2.13, 예산 해덕사) · 내포 소리 관련
- 일월스님**(2012.7.17; 2014.10.5, 아산 일월사) · 수덕사 계열 범패송 관련
- 춘하스님**(1998.10.12; 2001.5.16; 2003.10.17, 아산 공덕사) · 수덕사 계열 범패송 관련